

임신초기 약물노출 후 임신결과; 10년간의 경험 -생식 발생 독성 정보 활용화 방안 연구-

최노미¹, 한정렬¹, 최준식¹, 안현경¹, 이시원¹, 김민형¹, 정진훈¹, 류현미¹, 김문영¹, 양재혁¹,
최규홍¹, 한유정¹, 김신혜¹, 이미범¹, 조연경², 이소영³, 홍달수⁴, 임옥룡⁵, 홍순철⁶

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주산기과 한국마더리스크 프로그램¹,
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산부인과학교실², 부산일신기독병원 산부인과학교실³,
대전미즈여성병원⁴, 강서미즈메디병원⁵,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⁶

Objectives (목적)

임신부에서 약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, 임신 초기에 노출된 약물로 인해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.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임신 중 약물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코호트를 구축하여 기형을 포함한 불량한 임신결과를 약물 노출이 없었던 대조군과 비교하고자 한다.

Methods (연구 방법)

본 연구는 관동대학교 제일병원의 기형유발물질정보센터인 한국마더리스크프로그램과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등에서 수행되었으며, 1999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임신 초기 약물에 노출되어 외래 상담하였거나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하였던 총 5,032건이 등록되었다. 이들 중 임신결과는 총 3,328건에서 알 수 있었고, 이들은 약물 노출이 없었던 2,545건의 대조군과 비교되었다.

Results (결과)

약물 복용 시작은 평균 임신 3.5주, 복용 종료는 평균 임신 4.6주이었다. 총 약물의 빈도는 31,742건, 노출된 약물의 종류는 총 1,308건이었고, 다빈도 약물로는 Acetaminophen, Chlorpheniramine, Pseudoephedrine 등의 순이었다. 연구군에서 기형발생을 우려한 인공유산은 4.7% (156/3,328), 자연유산은 6.8% (227/3,328)였고, 약물노출이 없었던 대조군과 비교 시 선천성기형발생률은 연구군에서 2.5% (74/2,977), 대조군에서 2.9% (75/2,573)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($p=0.32$). 또한, 37주 이전에 출산된 조산아 빈도와 2,500g미만의 저체중아 출산율 및 임신 20주 이후의 자궁내태아사망률 빈도도 대조군과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Conclusions (결론)

본 연구에서 임신 초기 다양한 약물에 노출된 연구군과 약물 노출이 없었던 대조군에서 선천성기형발생률을 포함한 불량한 임신결과는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었다. 그러나 각 약물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더 많은 연구군 모집과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다.